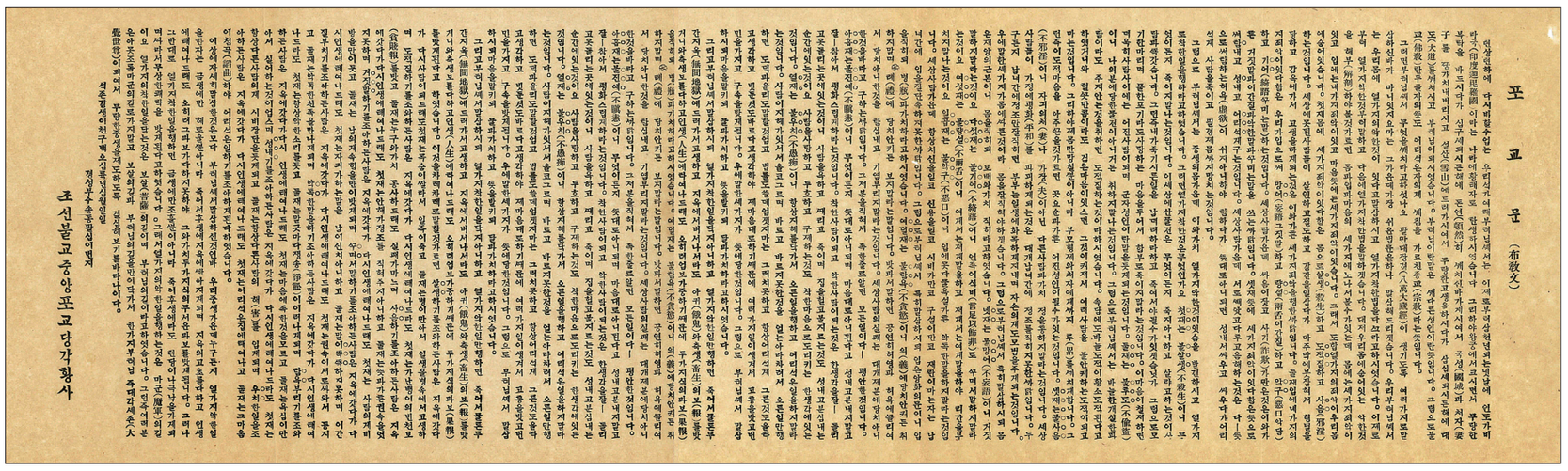

포 교 문 (布敎文)

1929년 포교문 사진.

일제강점기 포교권선문, 90여년 만에 빛 보다

조계종 포교원 1929년 포교문 및 1932년 봉축 홍포문 공개

200만매 배포 중 극소수 남아
일반시민 대한 포교권선 의미
종단 설립 이전 활동 가치지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법포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포교문' 과 193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를 알리는 '봉축홍포문' 이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0일 1929년 중앙교무원(각황사) '포교문' 과 1932년 '봉축홍포문' 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포교문과 봉축 홍포문은 당시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국민대 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에서 확인한 원본이다. 포교원은 법응 스님을 통해 '조선불교 중앙교무원(각황사) 포교문' 과 1932년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봉축 홍포문' 을 확보해 이날 공개하게 됐다.

포교문은 1929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황사 부처님 사리배관 공개와 동시에 200만매를 시내 요처에 배부키로 했다고 동아일보 기사로도 실린 바 있다. 포교문은 2013년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소장한 포교문이 교계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번 포교문의 보존상태가 더 뛰어나다.

봉축홍포문은 1932년 5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관등대회를 크게 열었음을 전하며 이 때 홍포문 배포를 시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광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불교전법 역사를 정리하며 가장 아쉬운 것이 시대별 전법의 형식과 내용이 전해지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었다"며 "조계종이 설립되지 않았던 1920년대 포교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교단 전법포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스님은 "그 내용을 보면 10선계를 지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어, 현대에도 전법과 포교에 근본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된다"며 "포교원에서 5대 수행법을 정리하며 계율 수행법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5계도 공동체 기여와 사회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해야한다. 환경, 평화, 갈등해소 등에 5계 실천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교문의 내용은 부처님일대기와 십악과 십선에 대해 당시 민중들이 알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봉축홍포문 역시 간결하고 쉽게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지 알리고 있다.

포교원 측은 보존처리를 거쳐 조계종 중앙기록관에 영구 보관할 예정으로 올해 추진하는 불교 성전, 불교의례문 등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교문 어떤 내용이?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란 두 글자의 뜻도 어리석은 자에게 깨침을 가르친 종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열 가지 착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열 가지 악한 일만 행하면, 죽어서 물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라도 아귀와 축생의 보를 받거니와 축생보를 다하고 인생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업보가 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식의 과보를(이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열가지 착한 일을 행하면 금생에만 좋을 뿐이 아니라 무상한 복락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착한 일을 닦는 것은 보살의 길이며 부처님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택트로 대불련 청년불자 모여라!

대불련 8월 6~8일 온라인 '영 부디스트캠프' 화제

코로나로 비대면 기기 활용
법회 · 명상 · 상담 등 진행



Zoom을 활용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는 모습(사진 오른쪽)과 이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대불련 학생들(사진 왼쪽).

"단국대 다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반대로 코로나 라는 재난도 저희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요가명상을 하는 등 좋은 경험을 해준 스님들과 대불련에 감사를 표합니다."

8월 7일 충무로의 한 모임공간에 보라색 옷을 입은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각종 카메라와 모니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한 이들은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도법사 윤성 스님의 명상지도가 시작되자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동참한 학생들은 저마다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윤정은, 이하 대불련)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한 '영부디스트캠프' 는 대학생 불자들의 온라인 소통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대불련은 당초 부산에서 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학생은 8명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나의 마음속으로, inside me!' 를 주제로 열린 만큼 온라인 프로그램 대부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첫째날 전혜정 대불련 포교간사의 연꽃잎 만들기 강의와 윤성희 요가강사의 요가강의가 진행됐고, 두 번째날에는 운성 스님의 명상버스킹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세광 스님의 고민속으로란 즉문즉답을 통해 대학생 불자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님과 함께 스스럼 없이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종욱 씨는 "예민한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친구가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보냈고, 세광 스님은 "먼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조용히 먼저 전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은 대불련 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법우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반가웠다. 전국의 지부들과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보다 원할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비대면 소통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도선사 영구 위패탑 '소울 포레스트' 완공법회

8개 유리탑에 8,500기 봉안

서울 우이동 삼각산 도선사(주지 도서 스님)는 8월 5일 경내에 영구 위패탑 8500기를 조성한 '소울 포레스트(소울림)' 완공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청담 대종사 사리탑 아래에 위치한 '소울 포레스트' 는 유리탑 형태의 8개 동으로 건립됐으며, 아미타불을 주불로, 각 위패탑 안에 8대 보살(문수, 보현, 관세음, 대세지, 금강장, 제장애, 미륵, 지장)을 모신 것이 특징이다.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본래 '소울' 이란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후손이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최고의 효도는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불사에는 설계디자인을 담당한 ㈜한국건축과 ㈜엘드림 종합건설 ㈜윤성 등 3개 업체와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유명한 신호윤 작가가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도선사 서울 포레스트 전경.

〈김창배 달마도첩〉 출간

8월 10~17일 기념전

선묵화가 김창배가 〈담원 김창배 달마도첩, 이하 달마도첩〉을 발간했다. 9년간의 화업수행(畵業修行)을 통해 완성한 〈달마도첩〉은 김 화백의 작품 800여 점을 수록한 대형화첩이다.


담원 김창배 달마도첩 / 글 · 그림 김창배 / 솔과학 펴냄 / 15만원

〈달마도첩〉에는 김 화백의 달마도 최신작 378점과 작가의 스승 금추 이남호의 달마도 25점,일본 중국 등 각국 박물관에 소장된 세상의 귀한 달마 40여 점 등이 실렸다. 한편 〈달마도첩〉 출간을 기념하여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담원 김창배 전' 이 열렸다. 전시에는 달마도를 비롯한 김 화백의 작품 130여 점이 선보였다.

박재완 기자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졸업자에게는 내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전수생으로 지정합니다.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8월 20일 (목) ~ 8월 28일(금)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특별반	각종행사 불교의식	조현성 스님	토	30명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